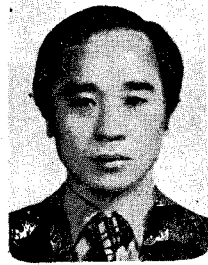


아트란타에서 파리까지 (完)

박 만 후

(과학축산·과학시스템 대표)



□ 나이아가라 폭포와 자유로운 토론토

J 부화기 회사가 있는 캠브리지에서 한 시간여 온타리오호를 끼고 동남쪽으로 달리면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에 있는 나이아가라에 이른다. 한때 세계최대라 불리웠던 이 폭포는 아마존강(?)에 있는 폭포에 밀려 세계 두번째가 되었지만 그 위용은 장관이었다. 미국 뉴욕주에서 흘러온 강물이 이 지점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온통 쏟아지면서 거대한 폭포 둘을 만드는데 하나는 호스슈(말발굽)폭포 또는 캐나다 폭포라고 부르는 주된 폭포로서 높이가 158자나 되며 다른 하나는 높이 167자의 아메리카 폭포로서 호스슈폭포에서 300여미터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폭포다. 두개의 폭포가 만들어내는 굉음이 강변을 메운 사이를 비집고 폭포옆에 도달했을 때 눈앞에 나타난것은 자욱한 물보라와 층층이 쌓인 눈과 얼음층 위로 우뚝선 거대한 얼음기둥과 벽, 그리고 그뒤로 흐르는 무한량의 폭포수, 에리호에서 시작하여 온타리오호에서 끝나는 36마일 길이의 이 강은 이 멋진 폭포를 인간에게 선물함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듯 우렁차게 쏟아져 내렸다. 폭포 옆 회전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폭포주위의 전경도 일품이었지만 멀찌감치 강위의 국경 초소를 넘나드는 자동차 행렬들에 대한 친구의

말이 또한 흥미를 끌었다.

즉 이들중 상당수의 캐나다형 차 뒷 트렁크에는 미국에서 계란을 가득 싣고와서는 캐나다에 팔고 가, 이 지방 채란계 업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단다. 계란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조절을 하고 있는 캐나다의 난가에 비해 자유방임인 미국의 난가가 항상 10~30%나 값이 낮으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행자들은 극성스럽게 트렁크에 계란을 싣고와서 캐나다쪽에 팔고 난후 들어갈때는 값이 싼 캐나다 휘발유를 한탱크 가득 채워 가면 여행비는 손쉽게 빠진다는 제산이란다.

캐나다는 원유생산량이 자국 소비량을 넘어서고 있으며 매장량은 중동에 비금간다고 한다. 참고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직 관광치 못하신분들이 이곳에 가실때는 꼭 캐나다 입국비자를 사전에 받으시도록 권하고 싶다. 이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 있으나 폭포가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떨어지므로 미국측에서는 폭포의 일부분 밖에 보이지 않으며, 잘 보이는 쪽으로 건너오려면 국경 초소에서 비자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장대한 물보라와 얼음벽을 뒤로하고 토론토에 돌아왔을때는 오후 다섯시경이 되었다. 저녁에 세안부화장의 서사장님과 같이나간 토론토의 밤은 그들이 자랑하는 자유의 천치 그대로였다. 어둠과 범죄와 공포와 적막만이 가

특한 미국 대도시들의 밤과 국경하나를 사이에 둔 캐나다의 밤이 어찌면 이렇게 다를수 있단말인가? 한동안 믿어지지 않아 조심스러웠던 자신이 밤이 깊어 갈수록 바보스러워진 자유의 찬지다. 통금도, 범죄도, 공포도 없고 밤이면 괜히 두려워지는 흑인들도 드물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림없이 때마침 포근했던 날씨를 즐기러 밤 늦게까지 거리를 누볐다. 암흑과 범죄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이웃 미국의 밤과 얼마나 큰 대조인가? 혹시나 뉴욕·허드슨 강에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저녁 6시 이후의 자유를 몽땅 몰아 캐나다로 보낸것은 아닌지?

호텔에 돌아왔을때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들에게 “새해를 축하한다”는 인사를 듣고는 어리둥절해진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때는 그날이 구정 초하루라고 아가씨가 말해준 후였다.

자동급이 시스템을 제조하여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C사의 사장 나이캠프(Nykamp)氏의 초청을 받고 토론토를 떠나 미시간주의 그랜래피드에 도착했을때는 공항도 눈으로 뒤덮혀 있었다. 거대한 체구의 나이캠프씨가 체구에 걸맞게 큰 캐디락으로 1시간반을 눈보라 사이로 몰아 도착한 홀랜드는 미시간호 동부 호안에 자리한 작은도시, 화란인이 80%이상이나 살아 이름이 홀랜드인 이도시 교외에 C사는 세계의 공장을 가지고 각종 자동급이기와 급수기, 가스육추기 등을 제작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열 집적장치를 개발해 보급중에 있다. 이 회사는 6년전까지만 해도 이회사의 사장 나이 캠프氏가 부사장으로 있던 B 회사에 체인 급이기를 제작 납품하던 회사였으나 그후 납품을 중단하고 완전 분리 독립한 후 체인 급이장치는 물론 오가급이기등도 개발하여 .종계용의 평사나 케이지의 자동급이장치로는 체인 급이기를 공급하고 브로일러사육에는 오가급이기를 판매한다고 한다. 어느 한 급이시스템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일부의 선전

은 급이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것이다. C사는 이외에도 작년엔 좁은 체인을 개발, 표준체인에 비해 에너지절약형 체인 제작에도 성공했으며 핫록(Hot rock)가스육추기도 개발하여 종래 육추기보다 가스소비량을 20~30% 줄이는데도 성공한바 있다. 모든 부품을 자사에서 제작하여 제품을 만드는 그들의 자동화된 생산시설과 품질관리에 부러움을 느끼면서, 우리도 하루빨리 시장이 형성되어 그들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솟아오른다.

□ 민주워싱턴과 모노플로 급수기

미시간 호반에서 배풀어준 사장아들내외분의 따뜻한 저녁 초대와 필자를 30살 전후로 보아준 그들의 친절(?)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한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것은 2월10日, 미국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여나 되었는데도 백악관 앞 광장에는 취임식때 세웠던 아취를 뜯어놓은 더미가 수북히 쌓인채 널려져 있었다. 비록 세계의 수뇌들이 분주히 드나드는 곳일지라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그들에게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단면을 볼수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런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나마 있어 봤으면 하는것이 나의 때이른 소망일까? 다음날 오랫동안의 한국음식 맛에 정신을 잃던 서정환씨를 뉴욕으로 보내드린후 모노플로사를 방문했다.

프라스틱제 자동급수기와 님플형 케이지 급수기 및 양돈용 님플 급수기를 만들어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동사는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30여분 떨어진 곳에 사무실과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 공장에는 현재 한국인도 한명있는데 근무성적이 좋다고 칭찬이 대단했다. 자동급수기의 대중용을 이루고 있는 프라스틱 급수기도 개발 초창기에는 금속철판으로 만든 트립

(Trough)급수기를 원형으로 개량하고 그 자체를 플라스틱으로 바꾼것에 불과했으나 그 후 개량이 거듭되어 오늘날에는 평사용자동 급수기라면 80%이상이 플라스틱 종형(鍾型) 급수기일 정도로 플라스틱 급수기의 보급율은 높다. 그 주된 원인은 트랩급수기에 비해 고장이 적고 천장에 매달기가 용이하며 가격도 일반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계사내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가스에 손상되는 일이없어 수명도 보통 2배 이상 길며, 철제 트랩급수기처럼 닭의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급수기는 바닥에 볼라스트라는 것을 부착하며 어린 병아리급수시 계사바닥에 그대로 세워 놓을수 있어 높이 조정에 한계가 있는 초생추 급수기를 별도로 사용해야하는 철제 트랩 급수기에 비해 유리하다. 80년에 개발된 초생추용 특수 급수기인 미니(Mini) 급이기는 값이 싸고 어린 병아리 급수에 적응성이 좋으며 수입에 상관없이 작동하므로 2년간의 양계 불황기에도 큰 보탬을 주었다고 한다. 회사경영에 케이지 급수기의 대중을 이루는 닙플(Nipple)은 일반 플라스틱 급수기 보다 설치시에 다소 비용이 더 들지만 물 소요량을 줄여 연변 현상을 개선해주고 물통청소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음수를 통해 일어나는 질병의 감염기회를 대폭 경감해준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5수용 케이지 2칸에 하나를 두는데 비해 우리는 2마리 수용케이지 두칸에 하나를 설치해주어야 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 만하탄과 저무는 영국

세계의 수도라는 워싱턴을 떠나 켄터키 주에 있는 P, I, C, (Pig Improvement Company)를 방문하여 년간 종돈수출 20만두를 기록하여 세계의 돼지육종을 리드하고 있는 그들의

육종기술과 시설에 하루를 보낸후(그후 금년 6월에 재방문, 1주간 교육과 협의를 함), 아팔라치아 산맥위로 날아 뉴욕에 도착한것은 2월의 13일이자 금요일오후,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계획했던 에고매틱사 방문은 월요일이 조지워싱턴 탄신일이라 또 휴일이 됨에 따라 만하탄과 브로드웨이의 구석을 뒤지느라 모두 보내고 말았다. 빌딩의 숲과 바겐세일 상가며 오! 칼라타에 도착된 3일간의 일정으로 인간이 필요한 모든것을 지닌 미국에 작별을 고한후 영국에 도착한것은 2월 16일, 미르텍(Meatec)회사의 시설(Sansom)씨가 하루 공항에서 클로스터시 교외에 자리한 그들 사무실로 안내했을때는 장거리 비행기로 지친몸이 탈진한 상태였을때다. 도계장에서 나오는 내장, 발, 머리, 깃털등을 대형 고압 쿡커(Cooker)에 넣어 가수분해하여 육골분과 유사한 사료원료를 만들어 내는 렌더링(Rendering)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다. 폐기물을 이용 사료자원화 하는 과정에 관심이 가면서도 하루 8,000수이상을 처리하는 도계장에서나 이 시설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주목해진다. 특히나 닭발과 목을 상품으로 이용하고 깃털도 타용도로 판매되고 있는 우리나라이니만큼 언제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지금도 파업과 폭동으로 어수선한 나라지만 그때도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 광산을 폐광시켰다고 탄광 노조에서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신문과 TV는 연일 대서 특필했고 철의 부인 대처수상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맞서 있었던 상태였다. 끊임줄 모르는 빛속으로 히드루 공항을 향해 달릴때 고속도로 주위에 펼쳐진 초지에는 소와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펼쳐진 저 평야와 잦은 비가 이나라 목축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깨어났을때는 런던을 지나 히드루에 닿아있었다. 산유

국이면서도 무역 역조에 허덕이는 노대국이여 파업은 가고 영광만 남으라 축복해 본다.

□14남매든 Mr. Meyn

도계기에서 알파에서 오메가 까지 공급한다는 메인(Meyn)사는 14남매를 둔 아버지 Meyn 氏의 다섯째아들 옴 메인이란 28세의 젊은 패기에 넘친 청년이 이끌어 가고 있다. 하도 많은 남매라 귀속말로 아버지 Meyn 氏의 부인이 몇이냐고 물었더니 한사람 뿐이란단다. 혹시 전처의 아들까지 합친 숫자냐는 되 물음에 그는 이혼경력이 없다니 놀랄 일이다. 한 부인이 14남매를 두고도 아직 전처하시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내에서도 아버지 Meyn 氏는 아이 만드는 일과 새로운 기계를 만드는 일밖에 모른다는 농담들이 오고간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지만 새로운 도계기 설계에 여념이 없고 일반 경영은 아들이 전부 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도계용 닭을 트럭에서 내리는 기계에서 계근, 절단, 방혈, 탕지, 탈모, 내장적출, 냉각, 중량별 선별, 포장에 이르기 까지 수십종의 기계를 제작,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제작팀과 아들을 중심으로한 판매 및 경영팀이 탈모기 하나등의 단일 기계에서 턴키 프로젝트(Turn key)에 이르기 까지 지구 구석구석까지 그들의 시장망을 구축해 놓고 주문을 대기하고 있었으며 자동화되고 전산화된 생산체제를 매년 확장하기에 바빴다. 도계시설하면 수억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탈모기 탕지(적)기 이외에 콘베어만 있으면 도계장의 현대화는 일단 달성되며 이정도 비용은 수입관세 등을 합해도 3~5 천만원이면 되는 셈인데도 도계장 현대화는 수억대의

자본이 투입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은 이상한 일이다. 하기가 미국이나 유럽식으로 내장적출이며 냉각, 자동분류와 포장등 모든 장치를 전자동화하고 렌더링 시설까지를 모두 한다면 그렇게 안될 것도 없지만 발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하지 않을까?

국내 모 도계장 처럼 상당한 단계 까지 자동화 해놓고도 지나친 자동화가 원가 부담만 가중시켜서 결국에는 일부시설은 사장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 재고해 볼 일이다.

□니스와 로마 그리고 산도스

이들의 안내로 유리브리드 계열 회사인 핑고(Pingo)도계장 등을 돌아보며 도계처리에 대한 지식을 더한후 자동환기 시스템 전문생산업체인 소멧(Smet), 자동급이기의 라코(Laco), 육골발 기계생산사인 프로테콘(Protocoon)사를 두루돌며 고도성장후에 나타날 우리의 기계화 자동화에 대한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분주한 일정과 나날이 변화되는 상황 때문에 말이 아닌 몸을 잠시 쉬기 위해 남부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휴양지 니스(Nice)에서 보낸 3일장과 몬테칼로 도박장이 있는 모나코의 오후도 잊을수 없지만 3월 1일에서 3일간 보낸 로마의 웅장함과 나폴리 폼페이 카프리섬에 이른 아름다운 자연도 언제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위대한 문명을 남긴 고대로마인들에 머리를 숙이며 소매치기와 날치기가 난무하는 오늘의 로마에 연민을 느껴야 함은 진실로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때문에 이태리의 몇몇 회사를 방문코자 했던 일정을 중단하고 스위스의 바젤(Basel)로 앞당겨 떠나게 되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었다.

저울도 풀려가고 있었으나 알프스의 연봉

은 눈을 가득 이고 있었고 바젤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오는데도 싸늘한 날씨에 옷깃을 여며야 했다. 산도스(Sandoz)사의 문서(Rooncer)氏와 란즈(Ranz)박사를 만나 소위 산도스 타운(Town)을 일일히 안내 받았다. 시가지의 몇개 블록이 세계적인 화학및 제약 회사인 이 회사의 고층 건물들로 들어차 있었고 일부 건물을 강 건너 프랑스 땅에 자리 잡고 있어 하루에도 몇번씩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한다.

다음날에는 해발 3,000m의 실튼혼(Shilton horn)에 올랐다. 저만치 떨어진 옹프라우봉과 매터혼이며 숨쉴사이 없이 변화되는 고산의 급변하는 기후를 회전 전망대내에서 바라봄 또한 가슴 벅차했지만 배른을 통해 돌아오는 길 주위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는 한폭의 그림이었다.

□ 마지막 기착지 빠리

3月8日부터 시작되는 파리 농업 및 농기계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이 이번 여행의 끝이다. Salon Internation d'Agriculture 과 Salon International machinery d'Agriculture 라고 부르는 이 두 박람회는 그 연관성 때문에 동시에 개최하며, 파리 남부교외에 있는 수개의 대형 홀에서 8일간 개최된 유럽에서 개최되는 대형 농업박람회의 하나다. 약자로 줄여서 SIA와 SIMA로 표시되는 이 박람회의 특색은 축산을 제외한 타 농업 분야도 참가하므로, 각종 농산품과 트랙터등 대형 농기계가 서울 운동장보다 더큰 회장을 반 이상 메웠다. 축산 분야도 양계 이외에 양돈과 낙농, 비육우에 대한 사양, 관리, 시설은 물론 종축과 약품등도 동시에 전시되어 한꺼번에 농업전반에 대한 것을 입수할 수 있어 이 분야에 일일히 참석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편리했으며 젖소등의 품평회도 있어 이채로웠다. 육우와 젖소, 돼지의 특색은 미국과 달리

땅이 좁은 유럽국가들의 집약적인 생산체제에 적당하게 개량되어 있어 미국 종축에 젓어 버린 우리의 판단기준을 재정립 시켜준 계기가 되었던점을 생각하며 이들과 크지 않은 땅으로 인해 집약사육을 강요당하는 우리가 미국 일변도로 받아들인 체제와 지식의 수정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아름다운 파리장과 역사가 서린 이 예술의 도시를 뒤로하면서 2개월여에 걸친 긴 여행에 막을 내리고자 한다.

(* 국외 여행관계로 두달간 쉬었던 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 (필자註))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원의 기본 경영방침

1. 양축가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이로 인하여 발전한다.
2. 원재료 공급자, 판매자 그리고 양축가와 더불어 공존공영을 도모한다.
3. 이익은 사회에의 공헌에 대한 보수로 생각한다.
4. 공정한 경쟁을 행한다.
5. 중지를 모아 전원경영을 행한다.

세원사료(주) 천안 (2) 8001~5
서울 (713) 2205~6